

쏟아진 확진자... 최악상황 대비 의료시설·의료진 확보 총력

광주시·전남도 확산 방지 초비상

광주·전남 음압병상 61곳 뿐

확진자 다녀간 시설 폐쇄·방역

의심자 격리·치료시설 추가 지정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에서만 7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광주-전남도 비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역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환자들을 격리·치료할 병상 등 의료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환자 수가 급증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가 다녀간 지역 시설 곳곳은 폐쇄되고 방역이 진행되는 등 시도 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음압병상 61실이 전부=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현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 12실이 운영 중이다. 기독교병원, 보훈병원 등 7곳에 있는 19실까지 합치면 광주에는 모두 31실의 음압 병상이 갖춰졌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7명은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음압병상은 기압 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기능을 한다. 기압 차로 인해 병실 밖의 공기는 들어오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단순 격리병상과는 다르다. 광주시는 자가 격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접촉자들을 집단 관리할 시설로 소방학교 생활관 외에 5·18 교육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두 곳에서는 모두 10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전남에는 국립 목포병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등에 모두 30개의 음압 병상이 갖춰졌다. 다만 1인실 기준으로는 국립 목포병원·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에 각 4실씩 12실에 그친다.

전남도는 공공의료기관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28일까지 190실의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도 지정 접촉자 격리시설 21개소 392실을 갖추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중이다.

전남의 경우 음압병상 등 의료시설 부족과 함께

부족한 의료인력이 고민이다. 감염내과 전공 의사가 목포한국병원과 순천 성가톨릭병원에 각각 1명씩 2명이 전부, 부족한 의료시설과 맞물려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구조다.

◇광주·전남 곳곳 코로나 19 비상=광주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상당수가 대구 신천지 교회와 매개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자·접촉자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자 11명 가운데 4명이 양성, 나머지 7명은 음성으로 각각 판정났다. 확진자 4명이 격리되기 전까지 접촉한 이는 이날 현재 198명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자는 7명, 접촉자는 28명으로 조사됐다. 진단 검사 결과 2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고흥의 경우 주말 사이 한 바탕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진 환자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일 고흥에 출장을 왔다. 지역 실버대학 사무실, 도양음식당,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카페,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고흥군은 A씨와 직접 만난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2명 등 11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A씨가 방문한 실버대학과 우주과학관, 식당, 선거사무실은 폐쇄하고 방역했다.

전남소방본부 신규 공무원(20대 남성)의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전남의 희비가 갈릴 공산도 있다. 장흥에 위치한 전남소방학교 교육생인 이남성은 1차 검사에선 ‘양성’, 2차에선 ‘음성’이 나왔다. 3차 검사자 23일 조선대병원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진행됐는데 오후 6시 현재 조선대병원 검사 결과는 음성을 나왔다. 지난 17일 입교 직전 부산과 통영 등을 다녀왔지만, 대구를 방문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조선대병원에서 격리중이다. 소방학교에는 70여명의 교육생과 소수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신천지 시설 폐쇄·신도 전수조사 불가피”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의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해외 신종 감염병은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대구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

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는 상당히 진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중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시도지사들이 지역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의료시설과 인력 확보,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연동록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확진자 동선 상세 공개... 홈페이지 접속 폭주

광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만큼이나 많은 접속자가 시청 홈페이지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23일 오후 한때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 6명의 동선이 장소별 시간별로 공개됐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이 난 7번째 환자의 동선 및 접촉자는 현재 파악 중으로 조사가 끝나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내용에는 음식점과 빵집, 커피숍, PC방, 헬스장, 편의점, 대형마트 등이 상호명과 함께 방문 시간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광주의 첫 확진자인 16번째 환자와 그의 딸 18번째 환자 때만 해도, 동선 공개가 늦어지면서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에 있어 지침에 따르면과 동선 공개가 늦어졌다”면서 “지금은 광주시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동선공개가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박인국(46·광주시 봉선동)씨는 “시에서 동선공개로 바로 해주니, 가짜뉴스도 없어지고 막연한 불안감도 많이 사라진 듯 하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정보 만큼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국무총리가 본부장 맡아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이 방역과 범정부대책지원 담당한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한다.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정안전

부 장관이 맡는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을 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